

간염백신 상용화의 현주소

조문규 사무국장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은 오리사육농장에 한 번 발병하면 폐사율이 높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주요 질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 질병의 주요한 특징은 입추후 1-2주령인 새끼때 발병되고 폐사율이 20-30%, 심한경우는 60%까지 폐사를 보이며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어 항생제의 투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리사육농장에 이 질병이 발병되면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심한 경우 오리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이 질병은 3가지 타입으로 (I),(II),(III)형이 있으며 국내에 발병되고 있는 간염은 1형에 속하는 것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바 있으며 2형은 주로 영국에서 미국의 경우는 2,3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이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으나 국내서는 아직까지 백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서 발병되고 있는 간염에 대한 연구는 지난 95년도 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해 원인균이 분리되었고 백신개발이 진행되어 96년도 백신개발이 끝난상태이며 97년도에 백신개발 기술이 일반 제약업체에 기술이 이전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염 백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체에서 생산된 백신의 농장 실증 실험연구가 늦어져 검정에 의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장의 실증실험을 거쳐 내년 초에 검정을 끝내고 간염백신 시제품 생산을 계획중인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남지역의 오리사육농장에서 의 백신효과는 95-97%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백신은 주사 및 음수투약등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음수투약의 경우 백신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주사에 의한 투약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관계자는 질병발생 일령이 빠르고 심한 농장의 경우는 주사에 의한 투약이 효과가 크고 질병발생일령이 느리고 발생정도가 약한 농장은 입추시 음수투약에 의한 백신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질병으로 추정되는 폐사로

검정중에 있는 백신을 투약한 농장이 중부지역에만 4개소 있는 것으로 제약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백신을 투약한 농장의 백신투약 효과와 제약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는데 농장별로 다른 반응이 나왔다.

경기도 양지의 한농장은 어릴 때 폐사율이 30-40%로 나타나 육추장내 연막소독, 불소독, 석회소독 등을 해도 폐사가 줄어들지 않아 부화장을 바꿔 새끼를 입식했어도 질병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백신을 투약한 경우이다.

이 농장은 질병발생일령이 5일령부터 14일령까지 나타나 주사에 의한 백신이 권장됐다.

한달정도 백신을 투약한 결과 폐사가 다소줄어들긴 했으나 완전하게 질병이 잡히지 않아 이 농장관계자는 백신투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노동력에 비해 백신효과가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에서 어릴 때 폐사율 30-40%나타나 역시 백신을 투약한 농장이다.

이 농장역시 주사에 의해 백신을 투약하였고 지금도 백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사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폐사율이 8%선까지 떨어졌으나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정도까지 폐사율이 떨어지는 않았다고 농장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이 농장관계자는 백신에 의한 효과가 분명히 인정되고 시제품이 나오더라도 백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신가격에 비춰 폐사율 감소에 의한 생산성이 높아져 백신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서 2주에 한 번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오리를 사육하고 새끼때 폐사율이 10-20%에 달한 농장의 경우이다.

이 농장은 백신투약후 새끼때 폐사율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육용오리 가격불안에 의해 새끼오리 입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농장의 경우는 백신효과가 가장잘 나타난 농장인데 이후 새끼오리 입식을 중단하여 정확한 효과를 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까지 간염백신을 투약한 농장의 반응을 종합하면 백신효과는 인정되나 완전하게 폐사율이 줄어들지는 못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간염백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약업체 관계자는 현재 농장에서 발병되고 있는 간염에 다른 타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인지, 농장에서 백신을 투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3가지 사항을 놓고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투약후 질병발병율이 줄어

들기는 하나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관계자는 또 만일 다른 타입에 의한 간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원인균을 분리해야 하며 이를 규명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적된 바와같이 오리사육농장에 발병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간염은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질병예방차원의 백신 시제품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오리사육농장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일보한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간염질병예방차원의 백신시제품 생산에 사육농가가 거는기대는 새끼오리때 폐사율을 줄여줄 수 있는 확실한 효과를 거두는 제품의 생산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제약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바램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육농가의 기대에 근접하는 제품을 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사육업계의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말그대로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말해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내 농장의 위생적인 관리의 선행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백신시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을 빌리 않더라도 현재 오리

사육농장의 위생관리수준은 사육업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분명 타 가축에 비해 질병에 강한 동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농장의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수준이 높을 때 해당되는 말로 풀이된다.

육용오리 출하율이 95%대를 넘는 농장은 위생관리 및 사육관리가 남다른 농장들이다. 일부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육용오리를 주당으로 장기사육하는 농장들은 질병예방을 위해 분뇨를 처리한 이후 바닥을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충남지역에서 오리간염으로 새끼때 폐사율이 높던 농장은 오리사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육추장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개조한 이후 새끼때 폐사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 모두는 질병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거하므로써 질병발생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오리사육농장의 경쟁력은 육용오리 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생산성에 좌우된다는 인식하에 사육업계는 위생적인 오리사육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시 오리간염에 의한 사육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농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한 이후에 백신을 통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